

외침

<등장인물>

도현 (고등학생)

어린 도현 (초등학생)

지수

아이들 (고등학생 + 초등학생 : 수는 되는대로)

남자 선생님

<장소>

고등학교

교내

<런닝타임>

약 6~7분

<주제>

교육이라는 이름의 폭력.

독재정치와 같이 아이들의 꿈을 천편일률적으로 강요하고 억압하는 교육에 대한 비판.
자신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선동하는 교육에 환멸.

S#1. 시골 교실. 오후. 실내. 흐림

흐린 교실 안.

늦은 오후의 석양이 교실을 은은하게 비추는데 도현과 지수의 자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빛이 들어온다.
도현은 지수보다 왼쪽 대각선으로 조금 앞자리에 앉아있다.

아이들은 모두 같은 옷을 입고 있다.

짙은, 흐린 느낌의 옷.

도현과 지수만이 그보다 조금 밝은 색감의 옷이다.

선생님은 검은 양복

선생님 “오늘은 수업 전에 칠판에 여러분의 꿈을 적어볼까요? 적고나서 큰 소리로 외치고 시작합시다”

생각에 잠기는 도현

S#2. 학교 앞 운동장. 오전. 실외. 맑음

(과거회상. ex. 뷰티인사이드 같은 색감. 빛바랜 황색느낌)

느낌을 bgm 으로 따지면 ‘이별’

지수에게 사진을 보여주는 도현

설레는 표정.

도현 “너는 꿈이 뭐야?” (대사의 느낌은 단편영화. ‘인형’. 대사가 잘 들리게)

지수 “나? 그냥 뭐... 성적 맞춰서 대학 가보면 정해지지 않을까”

도현 “아니, 그런거 말구. 니 진짜 꿈”

지수 “진짜 꿈..? 글썄.. 딱히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도현 “정말 하고 싶은게 있을 거 아냐”

지수 “흠... 그럼 너는?”

(사진을 보여주며)

도현 “나는 여기에 가는게 꿈이야”

(피식 웃는 지수)

지수 “여기에 가는게 꿈이라고..? 그게 꿈이야?”

(자신있게)

도현 “응. 노르웨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자연을 느끼면서 살고 싶어”

(당당하고 진지한 도현의 모습에 웃던 표정이 진지하게 바뀌고)

지수 “아..”

(머리를 긁적이며 쓴웃음)

도현 “내가 이상한가..? 하긴 다들 들으면 웃긴 하더라.”

(당황하며)

지수 “아니야. 그런게 아니라.. 조금 낯설어서. 보통 우리때 하는 생각이랑은 조금 다르니까..”

(살짝 실망하지만 이내 다시 자신감)

도현 “그래도 이게 내 진짜 꿈이야”

(그런 도현을 보며 놀라고는 이내 미소를 짓는다)

지수 “응 ㅎㅎ. 멋지다!”

서로를 쳐다보며 웃음을 짓는 도현과 지수

(도현의 웃는 얼굴 O.L)

(현재)

S#1. 시골 교실. 오후. 실내. 흐림

행복한 미소를 짓는 도현.

순서에 맞춰 꿈을 적고 오는 학생들.

꿈을 적고는 큰 소리로 학생들 앞에서 꿈을 외친다.

석양 빛이 칠판에 좀처럼 들어오지 않는다.

- 1.
- 2.
- 3.

처럼 적혀 있는 학생들의 꿈. (정체성의 상실. 천편일률적이고 주입되어버린 꿈)

6번째 차례의 도현.

칠판의 6번 자리에는 석양 빛이 은은하게 감돈다.

자신의 꿈을 말할 생각에 설레는 표정이다.

6을 적으려다 멈칫하고는 결심한 듯 ‘도현’ 이라고 적는다. (정체성의 확립에 대한 의지)

‘도현. 노르웨이의 자연을 직접 경험하기’

꿈을 적고는 행복한 미소를 짓는 도현.

도현은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외치려 뒤를 돈다.
도현 “제 꿈은...!”

킥킥 웃음을 터뜨리는 아이들과 선생님.
마치 바보를 보는 듯 비웃는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목소리.
‘저게 무슨 꿈이냐 ㅋㅋ’
‘바본가? ㅋㅋㅋ’

당황하는 도현.
역시나 모두가 자신의 꿈을 비웃는다.

석양 빛의 절반정도만 비춰진 선생님
타이르는 듯한 말투
선생님 “도현아, 저런 건 꿈이 아니야.”

고개를 숙이며 침묵하는 도현
도현 “...”

선생님 “꿈이란건 저런거야.”

칠판에 써있는 다른 아이들의 꿈.

1. 의사
2. 변호사
3. 과학자
4. 공무원
5. 아이돌

제각각 삐뚤삐뚤한 글씨.
(각각의 개성은 다르지만 꿈은 천편일률적)

(로우앵글 : 아이들의 꿈이 도현에게 더욱 무겁게 느껴지도록)

떨리는 도현의 눈.
이내 눈빛이 변하고
도현 “하지만 이게 제 꿈인데요”

선생님 (온화한 미소) “자, 다시 써봐”

도현 (확신한다는 듯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게 제 꿈...”

미소가 정색으로 바뀌는 선생님 (C.U)

선생님 (목소리도 무겁게 바뀌며) “도현아”

당황 / 겁먹은 도현

석양 빛의 그림자 속으로 빨려들어가듯 허리를 곧게 펴고 얼굴은 그림자로 인해 거의 잘 보이지 않게.
마치 그림자 속에서 이야기하듯.

선생님 (무거운 목소리) “어서 다시 써봐”

억울하고 분하다는듯 지수를 쳐다보는 도현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
비웃는 아이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웃지 않고 있는 지수
지수는 그런 도현을 측은하게 쳐다보지만 도울 수 없다.

혼란스러운 도현

도현은 분필을 쥐고 잠시 고민한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선생님을 쳐다보는 도현.
여전히 선생님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는다.
가만히 도현을 지켜보고 있는 선생님.
고민하다가 뭔가 결심한듯 이내 칠판에 꿈을 적는 도현.

‘도현. 노르웨이의 자연 속에서 생활하기’

여전히 그림자 속에 있는 선생님
(서서히 zoom인)

선생님 “... 안되겠네”

선생님은 칠판에 있는 도현의 꿈을 지운 후 적는다.

‘6. 선생님’

억울하고 분한 표정으로 선생님을 노려보는 도현.
교실에는 정적이 감돈다.
선생님 “니 꿈은 선생님이야. 10번 외쳐”

도현 “....”

선생님 “외쳐..”

도현 “....”

선생님 “외쳐!!!!!!”

도현 “제 꿈은....”

잠시 정적
주먹을 꽉 쥐는 도현
크게 외친다.

도현 “제 꿈은... 노르웨이에 가는 것입니다! 내 꿈은 노르웨이에 가는 것입니다!!”

선생님 “야!!”

도현의 입을 틀어막는 선생님
입을 틀어막는데도 뿌리치며 계속해서 외치는 도현

도현 “제 꿈은 노르웨이에 가는 것입니다!!!”

도현을 끌고 나가는 선생님
끌려가는데도 계속해서 꿈을 외치는 도현.
너무 놀라 겁먹은 지수
지수의 표정과는 상반되게 아이들의 표정은 아무렇지도 않다.
저 멀리서 도현이 외치는 소리가 점차 줄어든다.
곧이어 헝클어진 머리와 흐르는 땀을 닦으며 돌아오는 선생님
한숨을 내쉬며 옷과 머리를 정리한다.

선생님 “후... 가끔씩 저렇게 특이한 친구들이 있어요. 노르웨이라니..참나”
헛웃음을 짓는 선생님.

선생님 “여러분들도 혹시나 저런 헛소리를 한다면 면담을 해야할 겁니다. 똑똑히 기억하세요.”

학생들 “네!”
유일하게 지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슬픈 표정으로 아래를 바라보고 있는 지수

선생님 “자, 다음~”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칠판 앞으로 나오는 지수

지수는 도현과 같이 분필을 쥐고 고민한다.

(아까의 회상에 이어서 과거회상)
S#2. 학교 앞 운동장. 오전. 실외. 맑음

미소짓는 도현과 지수

지수 “아. 그러면 나도 꿈 있어”
도현에게 마당이 있는 예쁜 2층 집 사진을 보여주는 지수

지수 “나는 좋은 엄마가 되는게 꿈이야. 이런 집에서 아이하고 같이 뛰어놀고 싶어”

도현 “정말 멋지다! 너는 꼭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거야.”

지수 “그치”

서로 다시 한 번 미소짓는 도현과 지수 (얼굴 한 번씩 C.U)

(지수의 미소 => 칠판 앞 슬픈 표정 O.L)

(현재)
S#1. 시골 교실. 오후. 실내. 흐림

분필을 든 채 쉽게 쓰지 못하고 망설이는 지수

그때 문이 열리고 문 앞에 서 있는 도현.
얼이 빠진 표정으로 땅을 보며 선생님과 지수 사이, 칠판 앞에 선다.
얼빠진 표정으로 나지막히 이야기하는 도현

도현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아주 멋진 꿈이야”
이제야 미소를 짓는 선생님과 박수를 보내는 아이들

여전히 같은 모습을 한 채 자리로 힘없이 걸어가는 도현.

도현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책상 밑에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다.
석양 빛이 지수의 자리에만 감돌게 서서히 움직인다.
다른 아이들과 같이 어두워진 도현의 자리

뒤돌아선 지수는 마른 침을 한 번 삼키고는 칠판에 꿈을 적는다.

‘7. 대통령’

(어렸을 적 모두가 공감했던 꿈 + 도현이 강요에 의해 적은 선생님이라는 꿈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잘못된 교육의 반복)

돌아서서 아이들 앞에서 외치는 지수

(자신없고 쓸쓸한 목소리)

지수 “내 꿈은... 대통령입니다.”

선생님 “아주 훌륭하고 멋진 꿈이네”

자리로 돌아오는 지수에게 박수를 치는 아이들과 선생님.

도현을 흘깃 쳐다보고는 자리에 앉는 지수

지수가 자리에 앉으면 이제는 석양빛이 어디에도 없다.

선생님 “여러분들이 아주 멋진 꿈을 가지고 있어서 선생님은 정말 기쁘답니다. 여러분이 내 제자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앞으로 모두 다 훌륭한 인재가 되길 바라요”

꿈을 잃은 듯 시무룩한 지수와 도현

선생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수업 준비를 해볼까요?”

화면이 선생님에서 학생들을 비추면

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이 되어있는 아이들.

(사실은 초등학생 아이들)

아이들 “네~!”

책상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아이들

가면이다. (교육을 받으며 자신을 잃어버리는 아이들)

도현은 노르웨이 사진을 쳐다보고 있다..

어두운 계열의 옷.

책상에서 가면을 꺼내는 도현

가면과 사진을 함께 보다가 사진을 구겨버리는 도현

구긴 사진을 책상 안에 넣는다.

(자신의 꿈을 구겨버리고 천편일률적인 교육과 자신의 진짜 꿈을 숨기며 사는 것을 뜻하는 가면이 있던 자리에 넣어버림으로써, 자신의 꿈을 학교에 의해서, 사회적 시선에 의해서 펼치지 못하고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꿈의 탄압을 비판.)

가면을 쓰는 도현. (슬로우 / 눈 C.U)

정면을 쳐다본다.

3초정도 가면을 쓴 도현의 모습을 픽스 (B.S)

BLACK (쿵)

선생님 “1학년 7반, 수업 시작합니다”

(매우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는 강압적 교육)

-END-

-레퍼런스-

“2+2=5”

<https://www.youtube.com/watch?v=EHAuGA7gqFU>

“우등생”

<https://www.youtube.com/watch?v=DXGRGTUk7jE>

“만우절”

<https://www.youtube.com/watch?v=Bu9EtumUev4>

“the trap”

<https://www.youtube.com/watch?v=a0coHjMBGnE>

“침입자”

<https://www.youtube.com/watch?v=50WZyUUvSc>